

민중, 오늘 본회의에서 부동산 입법 마무리

민중 "이전 정부도 부동산 책임" 통합당 "세금 정책 안돼" 원내대표 주례 화동 거부

21대 국회가 부동산 법안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3일 부동산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갈등은 절정으로 치달았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입법을 모두 마무리하고 공급대책도 조만간 발표할 방침이어서 당분간 경색 국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엇보다도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미래통합당의 거부로 열리지 못하며 여야는 아예 대화마저 단절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38%가 전·월세 임대차 주거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분들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을 환영하고 있다. 집값 폭등을 고통 받는 서민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것은 정부의 헌법적 책무"라며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내일 열린다에 임대차3법 중 남은 하나인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부동산3법, 즉 중부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을 비롯한 부동산 관련법안과 민생·경제 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혼란의 책임을 야권으로 돌리며 여론전도 펴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부동산 과열을 조기에 안정시키지 못한 우리 민주당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도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지금의 부동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의 하나는 이명박·박근혜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양적 팽창 때문"이라며 "이와 함께 공급대책도 조만간 발표하겠다. 투기이기는 환수하고 다주택자에게는 세금부담을 강화하며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보호하는 민주당의 부동산 안정화 3원칙은 어떤 저항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법안 처리 등 국회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7월 국회 이후 여야 간 협의를 잘했으면 좋겠다"며 대화를 당부했다고 홍정민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홍 원내대변인은 "의장이 부동산 법안 처리의 시급성이 있다고 이해한 것 같다"며 "내일 오후 2시 본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통합당은 민주당의 독주를 비판하고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의 부동산 세금 정책은 시장을 교란하고 부작용한 양산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극렬하게 반발하는데도 문제를 낳는 법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일단 지난 본회의에서 윤회숙 의원의 자유발언이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데 유효했다고 보고, 내일 본회의에서도 자유발언과 반대토론을 충분히 활용한 후

법안 표결 직전 퇴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도 거론되지만, 실질적 효과 없이 발목만 잡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실행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다. 정의 투쟁으로 선회하는 방안도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한편 이날 통합당 불참으로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원내교섭 주례 회동은 불발됐다. 18개 상임위 중 교육위와 국방위, 문화위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소위 구성조차 마치지 못한 상태여서 오는 18일 새 임시국회가 문을 열더라도 정상가동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오광록 기자 kroh@

문 대통령 지지율 46.4%

리얼미터 전주보다 2%p ↑ ...부동산법 정상 처리 48.6%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최근 9주째 이어지던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7~31일 닷새간 전국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0%포인트 오른 46.4%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 비율이 전주보다 오른 것은 5월3주차(62.3%-0.6%p ↓) 이후 10주 만이 내린 49.4%였다. 이 수치를 5월3주차(32.6%-0.5%p ↓) 이후 10주 만의 하락을 앞질렀다. 긍정-부정 평가 격차는 2.2%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에 들었다. 모름·무응답은 4.3%였다.

리얼미터는 지지도 상승에 대해 "행정수도 이전 추진, 부동산 문제 해결 노력 등이 지지도 상승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8.3%, 미래통합당 31.7%, 정의당 4.9%, 열린민주당 3.8%, 국민의당 3.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15.4%였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0.8%포인트 올랐고, 통합당은 전주와

변동이 없었다. 이번 조사는 YTN 의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처리를 강행한 데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리얼미터는 지난달 31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불참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이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주도로 통과'한 데 대한 생각을 조사했다. 그 결과 48.6%는 '표결 절차에 따른 정상적 결정'이라고 답했지만, 46.5%는 '야당을 배제한 일방적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잘 모름'은 4.9%였다.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59.0%)과 대구·경북(57.2%)에서는 '일방적 결정' 응답 비율이 높았지만, 광주·전라에서는 '정상적 결정'이 74.1%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광주 온 박주민 "현재, 광주 이전해야"

민주당 대표 경선 지지호소...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등 제안

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도전한 박주민(사진) 후보는 3일 광주를 찾아 "새로운 시대, 전환의 시대에 적합한 인물이 당 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적 기반이 없어 지역감등이나 구분이 없고,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 시기에 긴 호흡으로 국민과 대화하면서 고민해야 하는 만큼 제가 더 적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낙연 후보는 좋은 분이긴 하지만, 당 대표가 해야 할 역할은 긴 호흡이다"고 당권과 대권 분리를 강조했다.

박 후보는 "당 대표는 당을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끌고가면서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당 대표가 대권 후보가 되면 호흡이 짧게 나 수밖에 없다"고 당권과 대권을 넘보는 이낙연 후보를 직접 겨냥했다. 그는 이어 "이 후보는 당 대표로서 비전과 타임라인을 세우고 관리해서는 '아직 기한이 남았기 때문에 좀더 어떤 사람이 적합할 것인가 추려낼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최권일 기자 cki@



그는 "훌륭한 두 분이 먼저 당권 후보로 출마했지만, 당 밖에서 봤을 때 민주당 내부적으로 정제된 것 아니냐. 윗세대가 많고 이후 세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런 부분에서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두 분과 다른 색채의 좀 더 나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출마했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박 후보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광주와 전남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밸리를 명실상부하게 조성하고 혁신 등 이전기반의 정주여건을 확실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헌법 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고 지방에 거점 국립대를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후보는 앞서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방문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추모한 뒤 광주를 찾아 국립 5·18 민주 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최권일 기자 cki@

층수 규제·재건축 완화... 오늘 부동산 공급책 발표

당정, 주택공급 협의회 재건축 용적률 100%p 상향 유희부지 포함 10만+ α 공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역세권을 포함한 서울시 준주거지역의 재건축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500%로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서울 아파트 35층 층고 제한도 완화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당정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관한 협의회를 연 뒤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발표는 '주택공급 확대 TF(테스크포스)' 단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할 예정이다. 당정은 ▲수도권 재건축 용적률 상향 ▲지역 유희부지 활용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이 포함된 '10만+α' 규모의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의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을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 현금 등으로 일부 환수하는 것을 전제로 준주거지역 재건축 용적률을 100%포인트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애초 서울 준주거 지역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최고 700~800%까지 올리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급격한 상향은 무리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200~500%이고 서울시가 조례로 400% 정한 것어서 100%포인트 상향은 서울시의 조례 변경만으로도 가능하다.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에 따라 2014년부터 35층으로 유지 중인 준주거 건축물 최고 층수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신규 공급부지의 경우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외에도 마포구 상암 DMC 유희부지,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 강남구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옥 부지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당정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이 이어지자 투기이의 환수, 다주택자 세금 부담 강화, 무주택자 및 1주택자 보호 등 원칙 아래 입법 속도에 나선 상태다. 임대 기간 4년 보장과 임대료 상승 폭 5% 제한 등을 담은 임대차 2법 통과에 이어 4일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나머지 부동산 입법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서울·부산시장 될 사람 물색" 통합당 김종인, 재보선 구상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와 관련해 3일 "당선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가 끝난 후 보궐선거와 관련해 어떤 후보를 영입에 두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방행정이라는 것은 경영능력도 있고 국민과 소통능력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부산시장 후보 물색을 위한 기획단 구성에 관해서는 "아직 기한이 남았기 때문에 좀더 어떤 사람이 적합할 것인가 추려낼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연합뉴스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119호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임원 공개모집 공고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임원(상임이사, 비상임감사)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0. 8. 4.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

- 상임이사: 2명(경영이사 1, 사업이사 1)
- 비상임감사: 1명

2. 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3년

-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 해임되거나 임기 후 1년 단위로 연임 가능

3. 응모자격

- 가. 상임이사(헌법 및 전공분야 제한없음)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
 - 가. 도시개발 및 주택건설, 체육시설관리 등 관련업무 경험 경력이 있는 분
 - 나. 공기업 4급이상 경력에 있는 분
 - 다. 광기업 경영 등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력이 풍부하고 충분한 경영능력을 갖춘 분
 - 라. 대규모 조직을 경영할 능력이 있는 분
- 나. 비상임감사(헌법 및 전공분야 제한없음)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
 - 회계사, 원주급 이상 공무원, 경영전문가, 노무사, 변호사, 교수 등 공사 업무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 도시개발 및 주택건설, 체육시설관리 등 업무경력을 갖춘 분
 -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회계, 감사 관련 업무 경력을 갖춘 분

4. 주요업무 및 사업

- 상임이사의 주요직무
 - 가. 법령·정관상의 담당 직무(정관 제30조 임원의 직무)
 - 나. 내·외 의 관계 관리 직무
 - 다. 조직발전 관련 직무
- 비상임감사의 주요직무
 - 가. 도시개발 및 분양
 - 나. 주택건설 및 분양, 임대관리
 -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 라.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 마. 주차장 설치 운영 및 수탁관리
 - 바. 배상 및 회상 등 정사사업
 - 사.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위탁업무 수행 등

5. 직무수행요건

- 상임이사: 광주도시공사 상임이사 직무수행요건 불일 참조
- 비상임감사: 광주도시공사 비상임감사 직무수행요건 불일 참조

6. 임원의 임기계약 및 보수

- 상임이사: 임용일로부터 3년 계약기간
- 연봉에 의거 임기별 인건비를 및 인건조로 후 1년 단위로 연임가능
- 인건은 성과연봉제보수규정을 적용하여 임용대상자의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된 자가 가장 조정 가능
- 비상임감사: 임용일로부터 3년
- 별도의 보수는 없으며, 소정의 참석수당 및 월정액 활동비 지급

7. 심사방법 및 합격자 발표

-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 등
- 가. 1차 서류심사: 지원자의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 사후 전형 기준
 - (상임이사)
 - 기업 경영능력, 전략적사고 및 비전 제시 능력, CEO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정확한 분석과 판단력, 공사사업에 대한 전문성 및 비전, 공공성·기업성 조화 능력 등

【비상임감사】

- 광주광역시와 공직유리성과 책임감, 감사업무 수행 역량과 전략, 공사 사업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경영역량 분석과 대안 제시 능력 등
- 공사 홈페이지에 합격자 발표(정확성상 인정 및 공표 포함)

나. 2차 면접심사: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 계획서를 20분 이내 발표

- 직무수행 계획 발표시 프래그먼이션 발표 또는 서면 발표 가능
- 전문성, 리더십, 경영역량 및 문제해결 능력, 조직 및 노사관계 능력, 의사결정과 협상능력, 유망한 인재로 성장할 가능성
- 면접 심사를 위한 심층면접 실시

※ 비상임감사는 2차 면접심사를 생략하고 1차 서류심사로 결정

- 다. 임원후보복수 선정: 면접심사 결과 합격자 총합이 초과
- 최종 면접심사에 합격한 상위 1차 인용 후보자를 임명권자인 도시공사사장에게 복수 추천
- 비상임감사 인용 후보자도 서류심사 결과 인용 후보자를 임명권자인 광주광역시장에게 복수 추천

8. 지원서 접수 및 전형 일정

가. 지원서 접수: 2020. 8. 13. ~ 8. 24.(7/24) 09:00 - 18:00(까지 단, 토요일공공휴일은 제외)

- 제출서류
 - 1) 지원서 1부(소정양식)
 - 2) 자기소개서 2부(소정양식)
 - 3) 직무수행계획서 각 2부(소정양식)
- 상임이사 인용 지원서 자기검증 기술서(소정양식) 1부
- 상임이사 후보자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제출의무없음)
- 5) 지원경력서(상용) 8) 보유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각 1부
- 6) 기본경력서(상용) 9) 국내 및 지방에 납세 증명서(5년분)
- 7) 경력증명서(근무처별)

· 접수방법: 등기우편 접수 또는 방문접수(대리점접수 가능)

- 우편 접수: 접수 마감 시간 이전 도착한 경우
- 접수처: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경영지원처 총합팀(15층)
- 주소: (우편번호 61064) 광주광역시 서구 시정로 200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총무팀 임원추천위원회 담당자

나. 서류심사: 2020. 8. 27.(목) 10:00(예정) - 공사 홈페이지 공지

다. 면접심사: 2020. 9. 3(금) 예정 - 공사 홈페이지 공지

라. 임용후보자 복수 추천: 2020. 9. 4(토) 예정

마. 최종합동: 2020. 9월 중순 예정

※ 상기 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인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가 모집인원의 2배수(2명)에 미달하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최초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모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총무팀(02-600-66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임원 직무수행요건 1부.
2. 지원서(소정양식) 1부.
3.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4. 직무수행계획서(소정양식) 1부.
5. 지원경력서(소정양식) 1부.
6. 임용후보자 지원서(소정양식) 1부.
7. 지원서 접수 및 면접 일정 배부서 1부.
8. 상임이사 인용 지원서 자기검증 기술서(소정양식) 1부.

※ 불일 자료 및 서식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gmcc.co.kr)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3대 실명질환! 당뇨망막병증이란?

◆ 당뇨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시력에 가장 중요한 망막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는 병으로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 주위 부종과 출혈이 발생하게 돼 시력저하가 일어나는 병입니다.

◆ 증상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중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시력이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차 심해져 달기가 되면 신장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에 별레나 먼지 같은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나 커튼을 친 것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 광시증, 눈부심 등이 동반됩니다. 등이 동반됩니다.

◆ 종류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과 증식성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증식성은 망막의 혈관이 점점 약해지며 혈청이 새거나 혈관이 막히며 망막의 영양 공급이 끊겨 시력이 나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망막병증 환자 대부분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식성은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나타나 증식하고, 유리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며, 섬유혈관막이 증식하면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박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 치료

당뇨망막병증 치료는 진행시기와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철저하게 혈당조절을 함으로써 당뇨망막병증을 억제하고, 여기에 망막혈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꾸준히 망막영양제 혹은 망막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주사치료, 초저체절제술 및 유리체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신세계화점 대각선 노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